

한일 예능 프로그램 자막 대조연구

—유형 분류 분석을 중심으로—

이 충 규*

(e-mail : ch4229@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한일 예능 프로그램 자막 유형 대조 분석 |
| 2. 선행연구 개관 | 4.1. 발화 자막 |
| 2.1. 주요 선행연구의 유형 분류 | 4.2. 비발화 자막 |
| 2.2. 졸고(2015)의 유형 분류 | 4.3. 각종 부호 |
| 3. 본고의 유형 분류 및 고찰 프로그램 | 4.4. 한일 예능 프로그램 자막의 공통점과 차이점 |
| 3.1. 본고의 유형 분류 | 5. 나가기 |
| 3.2. 고찰 프로그램 | |

キーワード：テロップ(Telop), お笑い番組(Comedy program), 発話(Verbal), 非発話(Non-verbal), 語根(Root), 語幹(Stem)

1. 들어가기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 자막을 대상으로 유형 분류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대조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예능 프로그램 자막을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졸고(2015)를 참고하면서 좀 더 정교한 형태로 수정 보완한 유형 분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조 분석하여 언어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졸고(2015)의 후속편으로 해당 두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양국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본고에서는 졸고(2015)와 동일하게 자막을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는 단계에서

* 서원대학교, 조교수, 대조언어학

프로그램 구성의 일부로서 화면에 부가된 가시적인 요소'로 정의한다.

2. 선행연구 개관

본절에서는 양국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 대한 선행연구의 유형 분류를 정리하고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졸고(2015)의 유형 분류와 그 핵심적인 결론도 함께 제시하여 양국 예능 프로그램 자막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2.1. 주요 선행연구의 유형 분류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 관한 양국 주요 선행연구의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표1〉 자막에 관한 선행연구의 유형 분류

선행연구	대분류	소분류
강연임 (2007)	언어정보처리형	발화텍스트 원본 제시형 발화텍스트 요약 제시형
	상황정보처리형	발화상황 묘사형 발화내용 평가형
이은희 (2007)	기반 정보에 따른 유형	순수 음성 언어 기반 자막(출연자 발화·멘트 발화) 혼합 음성 언어 기반 자막(음성 정보 자막·음성 평가 자막)
	음성 표현 방식에 따른 유형	음성 반복 제시형 자막(완전 반복·부분 반복) 음성 변형 제시형 자막(음성 언어 축소와 확대·어휘 변형 등)
변영수 (2008)	발화 제시형	—
	의도적 제시형	혼합형 제작자의 의도적 제시형
	상황 설명을 위한 객관적 기술	—
권길호 (2012)	근원중심자막 (source-based caption)	출연자 음성 보완 자막 프로그램 진행 정보 전달 자막
	목표중심자막 (goal-based caption)	출연자 행동·상태 자막 제작진의 전지적 작가 자막
	2001: 情報整理型 2005: 情報明示型	内容明示(番組内容の明示と予告/発話内容の明示) 情報整理(新情報・旧情報の提示/発話の修正・省略)
塩田英子 (2001·2005)	2001: 反復型 / 2005: 強調型	発話の部分的な反復 発話全体の反復
	解釈型	視聴者代弁 出演者代弁
	—	—
設楽馨 (2008)	発話再現の文字テロップ	—
	同一の発話を伴わない文字テロップ	定型部分があるタイプ 定型部分が無いタイプ
里村洋子	発話文字化型	出演者の対応(出演者の発話全体/一部)

(2009)		ナレーションの対応(ナレーションの発話全体/一部)
	説明型	見出し(番組名、コーナー名、話題) 注釈(出演者名、情報の補充)
	非説明型	発話や状況に対する主観的な反応・恣意的な解釈

또한, 日本大学芸術学部放送学科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演習Ⅳテロップ¹⁾ 研究班(2000)¹⁾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다 상세한 유형 분류가 제시되어 있다.

〈표2〉 日本大学テロップ 研究班(2000)의 유형 분류

大分類	中分類	小分類	説明
演出意図による分類(系)	なぞり系 音声をそのままなぞる文字たち	甲 出演者の会話・言葉	登場人物の音声をそのまま文字にしてなぞる。
		乙 ナレーションの言葉	ナレーションの言葉をそのまま文字にしてなぞる。
		丙 音(効果音や自然音など)	会話・言葉以外の音を文字や記号にしてなぞる。
	説明系 番組内容を理解させる文字たち	甲 状況	音声なしで、文字だけで状況を説明する。
		乙 心理	心理状態を文字にして説明する。
		丙 時間	数字を使って時間経過を説明する。
		丁 見出し	企画のテーマやタイトルを表示する。
	画面切り換え系 『間』を作り出す文字たち	甲 接続詞	接続詞・接続助詞を使って画面を切り換える。
		乙 伏線	次の展開を予感、期待させて画面を切り換える。
		丙 画面占領	文字で画面を占領する。
表現形態による分類(型)	ノーマル型	これといって文字に特徴がない。	
	拡大・縮小型	文字の大きさを変化させてメリハリをつける。	
	漢字一文字型	漢字一文字で強調させ、インパクトを与える。	
	文字強調型	背景に色を付けて文字を強調する。	
	記号型	?、→、!などの記号で映像を理解させる。	
	特殊効果型	文字を揺らしたり輝かせたり特殊効果を加える。	
	写真・絵文字型	会話の文字と並行して写真や絵文字を加える。	
その他	上のいずれの型にもあてはまらない。		

졸고(2015)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막에 대한 유형 분류는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졸고(2015)의 유형 분류

졸고(2015)에서는 동등한 대조 환경의 구축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가능한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심플한 형태로 유형 분류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발화'를 키워드로 하여 발화를 제시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양분하고 전자를 '발화 자막', 후자를 '비발화 자막'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발화 자막을 다시 1) 발화를 100% 그대로 재현한 것과, 2) 관련어를 추가하는 등 발화를 약간 수정하여 제시한 것으로 구분하고, 비발화 자막에 대해서도 3) 발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과 4) 그 나머지 전부로 양분하여 순서대로 편의상

1) 이하, 편의상 '日本大学テロップ 研究班(2000)'으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한다.

‘發話100’ ‘發話’ ‘非發話100’ ‘非發話’로 칭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 분류에 입각하여 줄고(2015)에서는 ‘일본 예능 프로그램은 발화를 100%로 충실히 제시한 자막(發話100)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발화와는 일체 무관한 비발화 자막(非發話100)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양국 예능 프로그램 자막은 ‘발화 중시형(發話重視型)’ 일본 자막과 ‘비발화 다용형(非發話多用型)’ 한국 자막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3. 본고의 유형 분류 및 고찰 프로그램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본절에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항목으로 본고의 유형 분류와 고찰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3.1. 본고의 유형 분류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 예능 프로그램 자막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할 것이다. 대분류와 중분류는 줄고(2015)의 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소분류는 日本大学テロップ研究班(2000)을 비롯한 선행 연구의 분류를 참고하면서 본고의 연구 목적에 맞게 설정한 것이다. 단, 發話100 자막과 非發話 자막에는 특징적인 면이 부각되지 않으므로 소분류는 發話 자막과 非發話100 자막으로 한정하고, 각종 부호에 대해서는 중분류의 모든 자막과 함께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따로 다루기로 한다.

〈표3〉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 대한 본고의 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발화 자막	發話100 (발화를 100% 그대로 재현한 것)	—	
	發話 (발화를 약간 수정하여 제시한 것)	① 발화 일부 변형 자막 ② 발화 일부 축소 자막 ③ 발화 일부 확대 자막	㉑ 각종 부호
비발화 자막	非發話100 (발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④ 명사(구)·부사·감탄사 자막 ⑤ 어근 자막 ⑥ 어간 자막 ⑦ 불완전 형태 문장 종결 자막	

		⑧ 속마음 자막 ⑨ 출연자 지칭어 자막 ⑩ 자음 활용 자막 ⑪ 부호 활용 자막 ⑫ 기타 자막	
	非発話 (非発話100에 속하지 않은 전부)	—	

상기와 같은 유형 분류를 통해서 우리는 줄고(2015)와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양국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²⁾.

3.2. 고찰 프로그램

고찰 프로그램은 MBC의 '무한도전'(이하, 무도)과 日本テレビ의 '行列のできる法律相談所'(이하, 行列)로 각각 선정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을 고찰 대상으로 선정함에 있어서는 1)표3에서 제시한 유형 분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막의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2)줄고(2015)의 분석을 통해서 '무도'와 '行列'가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내 자막 활용도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3)해당 두 프로그램은 방송 기간이 충분히 길어 자막의 변천 과정을 추적할 후속연구의 고찰 대상 프로그램으로도 적합하다고 판단된 점, 4)'리얼 버라이어티'로 분류되는 '무도'와 '법률 토크 버라이어티'로 분류되는 '行列'의 세부적 장르 차이는 본고의 연구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³⁾. 본고의 고찰 프로그램 개요를 줄고(2015)의 동일 프로그램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본고에서는 발화 자막보다는 비발화 자막, 그 중에서도 非発話100 자막에 더욱 주목할 것이다. 그 이유는 非発話100 자막에는 일상 회화체에서는 볼 수 없는 자막 특유의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이고, 그들 중 일부는 한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줄고(2015)의 조사를 참고로 하여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자막 활용도가 제일 높았던 '무도'로 선정하고, 일본 예능 프로그램은 '무도'와 '유사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방송 기간 및 시청률, 현재 방영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최종적으로 日本テレビ의 'ダウンタウンのがき/使いやあらへんで!!'를 선정해 보기도 하였으나, 해당 일본 프로그램의 자막 활용도가 의외로 낮아 본고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고에서는 고찰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유사한 형식'보다는 '프로그램 내 자막 활용도'를 보다 중요하게 여긴 셈이다.

〈표4〉 고찰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약자	방송국	방송 개시일	방송 시간대	방송 일자	조사 분량
行列のできる 法律相談上	行列	日本テレビ	2002.04.07.	21 : 00~21 : 54	2013.06.30. (日)	43분 35초
					2014.06.29. (日)	43분 46초
무한도전	무도	MBC	2006.05.06.	18 : 25~19 : 55	2013.06.15. (土)	46분 20초
					2014.06.14. (土)	43분 46초

졸고(2015)에서는 '行列'는 2013년 6월 30일 방송분을, '무도'는 2013년 6월 15일 방송분을 고찰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자막의 변천 과정을 추적할 후속연구도 고려하여 각각 1년 후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였고, 4절에서 실시할 구체적인 고찰에서는 굵은 테두리로 처리한 1회 방송분만을 대상으로 세밀한 자막 유형 분류와 그 대조에 주력하기로 한다⁴⁾. 또한 참고로 표4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도 부가적으로 밝혀둔다.

첫째, 방송 개시일과 방송 시간대에 대한 정보는 위키백과를 참고하였다⁵⁾.

둘째, 조사 분량은 먼저 일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도입부에 있는 해당 프로그램 내용 등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부분과 프로그램 중간에 2회씩 있는 후원사를 소개하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마지막에 제작진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은 제외시켜 측정하고, 동등한 대조 환경의 구축을 위하여 일본 프로그램 조사 분량에 한국 프로그램 분량을 기계적으로 맞춘 결과다⁶⁾.

4. 한일 예능 프로그램 자막 유형 대조 분석

본고의 고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3절에서 제시한 유형 분류 중 중분류를 중심으로 한 하위 분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를 위해 졸고(2015)의 결과도 목적에 맞게 약간 수정한 형태로 함께 제시한다. 참고로 표 안의 '15·분'은 각각 '졸고(2015)·본고'를 의미한다.

4) 금후 자막의 변천 과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후속연구를 통하여 양국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 관련된 기초 자료와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5) 『한국어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일본어 위키백과』 (<http://ja.wikipedia.org/wiki>)

6) 결과적으로 한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자막 조사만 고찰 대상이 되었는데, 후반부 조사까지 포함한 프로그램 전체 자막에 대한 고찰은 한국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할 후속연구에서 따로 실시할 계획이다(졸고2015).

〈표5〉 고찰 프로그램의 하위 분류 결과

		行列(15)	行列(본)	합계	무도(15)	무도(본)	합계
①	発話	302	324	626	39	105	144
②	発話·発話	1	6	7	0	8	8
③	発話·発話100	2	2	4	1	7	8
④	発話·非発話	0	0	0	1	0	1
⑤	発話·非発話100	5	7	12	0	0	0
⑥	発話100	589	418	1,007	306	247	553
⑦	発話100·发話	1	0	1	4	22	26
⑧	发話100·发話100	5	2	7	6	30	36
⑨	发話100·非发話	0	0	0	0	0	0
⑩	发話100·非发話100	1	5	6	5	2	7
⑪	非发話	10	1	11	10	16	26
⑫	非发話·发話	1	0	1	1	0	1
⑬	非发話·发話100	1	1	2	0	0	0
⑭	非发話100	59	56	115	422	303	725
⑮	非发話100·发話	21	22	43	33	91	124
⑯	非发話100·发話100	20	10	30	191	147	338
⑰	非发話100·非发話	5	2	7	13	6	19
⑱	非发話100·非发話100	5	11	16	150	105	255
합계		1,028	867	1,895	1,182	1,089	2,271
분당 평균 자막 수		23.59	19.81	21.69	25.51	24.88	25.23
자막 등장 평균 시간		2.54초	3.03초	2.77초	2.35초	2.41초	2.38초

상기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일본 예능 프로그램보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막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일본 예능 프로그램은 ⑥发話100 자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⑭非发話100 자막이 월등히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줄고(2015)에서도 이미 언급한 내용으로 ⑯非发話100·发話100과 ⑱非发話100·非发話100의 결과도 함께 대조해 보면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화와는 일체 무관한 非发話100 자막이 훨씬 많이 활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제작진의 관여가 더욱 적극적임을 나타내는 대목으로 일본 예능 프로그램과 대비되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발화 자막과 비발화 자막으로 나누어 각 자막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본고의 고찰 대상이 아닌 다른 방송에서 수집한 예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4.1. 발화 자막

발화 자막은 출연자나 내레이션의 발화를 100% 그대로 재현한 発話100 자막과 관련어를 추가하는 등 발화를 약간 수정하여 제시한 発話 자막으로 분류할 수 있다.

4.1.1. 発話100 자막

(1)은 発話100 자막으로 분류되는 예들 중에서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한 것이다.

- (1)a. 「なんでやねん!」⁷⁾ (行列, 2014.06.29.)
- b. 「ちょっとゆる〜く」(行列, 2014.06.29.)
- c. 「여러부우운!」(무도, 2014.06.14.)
- d. 「절어?」 「'절어'까진 아니고...」(무도, 2014.06.14.)

(1a)는 출연자의 발화 “なんでやねん”이라는 大阪 방언을 그대로 자막으로 사용한 예다.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이 방언을 표준어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자막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 대비되는 일본 예능 프로그램의 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줄고 2015).

(1b)와 (1c)는 실제 발화 “ちょっとゆるく” “여러분”에서 밑줄 부분을 장음으로 발음한 것을 각각 「る〜」와 「부우운」과 같은 형태로 처리한 자막이다. 이와 같은 장음 처리는 교과서나 일반 문학작품 등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임으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나 만화 등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의 전용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1d)는 출연자의 비규범적인 언어 사용을 그대로 자막으로 처리한 예다. ‘절다’는 <대단하다, 굉장하다> 라는 의미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 현상이 자신의 기대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때 감탄사처럼 사용하는 말로⁸⁾, 요즘 젊은이들

7) 줄고(2015)와 동일하게 본고에서도 자막은 「」로, 실제 발화는 “ ”로 일관성 있게 표시하겠다. 단, “ ”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8) [인터넷 이디엄] <12> 절다 편(<http://www.etnews.com/201010070029>)을 참조 바란다. 참고로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절다’란 말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푸성귀나 생선 따위에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가 배어들다’ 혹은 ‘땀이나 기름 따위의 더러운 물질이 묻거나 끼어 찌들다’, ‘사람이 술이나 독한 기운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다’ 등의 뜻을 지닌 동사 ‘절다’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한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의 오락성·대중성이라는 속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비규범적인 언어라는 측면에서 영향력이 큰 텔레비전에서의 사용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와 비슷한 예로 「혈」과 「대박」과 같은 자막도 관찰되었는데, 이와 같이 비규범적인 언어가 자막으로 등장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 쪽에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発話100 자막에서는 「오늘 스트레스 좀 풀어볼까」(行列)와 「불일 없는 거지 쫓을 때까지」(무도)의 밑줄 부분과 같이 맞춤법에 어긋나는 예들도 보였고, 「 좋습니다」 「쏘오오오울~~」(무도)의 'ㅅ'과 'ㅆ' 부분을 'th'로 표기함으로써 특정 출연자의 'ㅅ'과 'ㅆ'의 발음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특징화한 예들도 관찰되었는데, 이들 또한 방송심의기획팀(2011:8)의 "가능하면 자막에서 옳은 표기를 하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지적에 위배되는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는 자막이라고 하겠다.

4.1.2. 発話 자막

発話 자막은 ① 발화 일부 변형 자막, ② 발화 일부 축소 자막, ③ 발화 일부 확대 자막으로 분류할 수 있다.

4.1.2.1. ① 발화 일부 변형 자막

(2)는 発話 자막으로 분류되는 예들 중에서 발화 일부분이 변형된 예를 제시한 것이다.

- (2)a. 「どんなに美味しくても言葉遣いには気をつける」(行列, 2014.06.29.)
- b. 「楽しい?」(行列, 2014.06.29.)
- c. 「인테리어가 너무 올드하네」(무도, 2014.06.14.)
- d. 「알러뷰×2」(무도, 2014.06.14.)

구체적으로 "どんなに美味しくても言葉遣いには気をつけてます", "楽しかったりするの?", "인테리어가 되게 올드하네", "알러뷰, 알러뷰"란 출연자의 발화가 (2)에서 확인되는 형태로 밑줄 부분이 수정되어 있다. 여기에 속하는 자막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일본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어미 부분이 보다 간략한

형태로 수정되는 것이 특징적이고, 한국 프로그램에서는 (2d)와 같이 되풀이 되는 어구를 「알리뷰×2」 「뛰야×3」 (←“뛰야 뛰야 뛰야”)과 같은 형태로 제시한 자막이 관찰되는데, 이와 같은 자막은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4.1.2.2. ② 발화 일부 축소 자막

(3)은 発話 자막으로 분류되는 예들 중에서 발화 일부분을 축소한 예를 제시한 것이다.

- (3)a. 「芝居全然してない」(行列, 2014.06.29.)
- b. 「趣味の「書」は雑誌に連載される腕前」(行列, 2014.06.29.)
- c. 「홍철이하고 고기 먹다가...」(무도, 2014.06.14.)
- d. 「아! 그리고...웃긴 춤 출 수 있어요」(무도, 2014.06.14.)

구체적으로는 “芝居全然してないですね”, “趣味の「書」は雑誌に連載されるほどの腕前”, “홍철이하고 고기 구워 먹다가”, “아, 저 그리고 약간 되게 웃긴 춤을 출 수 있는 게 있어요”란 출연자의 발화가 (3)에서 확인되는 형태로 밑줄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여기에 속하는 자막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축소되는데, 일본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어미 부분을 생략한 형태가 많고, 한국 프로그램에서는 중간에 있는 어구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4.1.2.3. ③ 발화 일부 확대 자막

(4)는 発話 자막으로 분류되는 예들 중에서 발화를 일부분 확대한 예를 제시한 것이다.

- (4)a. 「プロの実力見せつけます 坂上忍(47歳)」(行列, 2014.06.29.)
- b. 「制限時間は15秒」(行列, 2014.06.29.)
- c. 「잘 따라서 해요」(무도, 2014.06.14.)
- d. 「춤추다 보니까 (눈이) 가는 거 아냐」(무도, 2014.06.14.)

각 자막의 실제 발화는 “プロの実力見せつけます。坂上忍”, “時間は15秒”, “따

라서 해요”, “춤추다 보니까 가는 거 아냐”인데, (4)의 자막을 통해서 순서대로 각각 「(47歲)」 「制限」 「잘」 「(눈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자막은 출연자에 관한 부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발화에는 없는 주어나 조사, 부사 등을 첨가하는 형태로 등장하는데, 양국 예능 프로그램 모두 ① 발화 일부 변형 자막과 ② 발화 일부 축소 자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관찰되었다.

이상, 発話 자막으로 분류되는 몇 가지 예들을 확인하였는데, (1)~(4)는 ①·②·③에 각각 해당되는 수정만 이루어진 자막들이었다. 이 밖에도 양국 예능 프로그램 모두 아래의 예와 같이 복수의 수정이 함께 이루어져 등장하는 자막도 상당수 존재한다. (5)는 '行列'에서, (6)은 '무도'에서 인용한 예다.

- (5)a. “これやっぱ坂上さん難しいもんですか” → 「やっぱ難しい?」 (②①)
- b. “ちょっと隠す感じ” → 「(カバンを)隠す感じ」 (②③)
- c. “結構、うちの母をよく殺してました” → 「(想像で)母親をよく殺してた」 (②③①)
- (6)a. “9시 35분경 이쁘다” → 「오전 9시 35분경 예쁘다」 (③①)
- b. “조향을 이걸 좀 바꿔야 돼요” → 「(계약서)조향을 좀 바꿔야 돼요」 (②③)
- c. “우리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 「우리랑 스타일이 다르니」 (①②)

4.2. 비발화 자막

비발화 자막은 출연자나 내레이션의 발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非發話100 자막과 非發話100 자막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를 일괄 처리한 非發話 자막으로 분류할 수 있다.

4.2.1. 非發話100 자막

非發話100 자막은 양국 예능 프로그램 사이에서 차이점이 많이 관찰되는 자막으로, 연구 목적상, ④ 명사(구)·부사·감탄사 자막, ⑤ 어근 자막, ⑥ 어간 자막, ⑦ 불완전 형태 문장 종결 자막, ⑧ 속마음 자막, ⑨ 출연자 지칭어 자막, ⑩ 자음 활용 자막, ⑪ 부호 활용 자막, ⑫ 기타 자막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

4.2.1.1. ④ 명사(구)·부사·감탄사 자막

그림1~그림4는 非發話100으로 분류되는 자막 중에서 명사·부사·감탄사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1
行列(2014.06.29.)



그림2
무도(2014.06.14.)



그림3
무도(2014.06.14.)



그림4
무도(2014.06.14.)

상기 그림에 등장하는 명사「注目」과「외면...」·부사「뜨끔」·감탄사「워워」는 발화와는 일체 무관한 非發話100으로 분류되는 자막으로 단독으로 등장하거나 발화("일로 오세요")와 함께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출연자의 행동에 주목하도록 시청자를 유도하거나 출연자의 행동이나 감정을 묘사하기 위하여, 또는 발화와 관련되는 문장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㉔명사(구)·부사·감탄사 자막에 속하는 예들은 발화에 대한 제작진의 자의적 평가나 발화에서 느껴지는 감정 표현, 현장 상황 묘사, 출연자와 관련된 정보 제공 등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일본 예능 프로그램보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해당 예들을 훨씬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번 조사를 통해서 '무도'에서 발견한 예들을 유형별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줄고(2015)와 동일하게 지면 관계상 표6과 표7에서는 자막 표시를 의미하는「」는 생략하였고, 표제어인지의 여부와 품사 등의 제반 사항은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서 일일이 확인하였다(이하 동). 또한 띄어쓰기는 자막을 그대로 따랐고, 표7에는「게임 끝」 「신입 단원」과 같이 전항 요소와 후항 요소를 별개로 분석한다면 표제어로 등록된 예로 분류 가능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표6〉 ㉔명사(구)·부사·감탄사-표제어 등록 예

	구체적인 예
명사	털 (이상, 1음절) / 감동, 감명, 감사, 감탄, 걱정, 격려, 그때, 긴장, 난관, 낭패, 농담, 당황, 대박, 두피, 만약, 몸살, 발사, 빈틈, 빙고, 빙의, 상석, 실망, 실수, 안방, 열정, 영화, 오빠, 완전, 외면, 의욕, 이때, 입체, 장난, 질색, 집중, 침착, 평소, 허탈, 화색, 흡족 (이상, 2음절) / 고깃집, 고자질, 노익장, 마지막, 보태기, 사과즙, 집중력, 포인트, 헛소리, 활동비 (이상, 3음절) / 궁여지책, 끼어들기, 눈엣가시, 다정다감, 머리카락, 무아지경, 부창부수, 생면부지, 아수라장, 위풍당당, 이구동성 (이상, 4음절)
부사	뻑, 찻, 짹, 킁, 쿵, 휘 (이상, 1음절) / 가히, 감히, 그림, 근데, 깜짝, 깨갱, 덜덜, 뜨끔,

	마침, 많이, 바로, 벌떡, 빼꼼, 설사, 아니, 아직, 아쩔, 우쭐, 울컥, 이미, 이제, 일단, 자꾸, 잠깐, 지금, 진짜, 쿡쿡, 퍼덕, 한번, 혹시, 혼자, 월کم (이상, 2음절) / 그런데, 그리고, 다행히, 드디어, 때마침, 무조건, 벌러덩, 사실상, 어쨌든, 여전히, 재빨리, 정확히, 푸드덕, 화들짝, 후다닥 (이상, 3음절) / 그러니까, 꿈틀꿈틀, 사뿐사뿐, 살랑살랑, 싱글벙글, 알콩달콩, 오글오글, 옥신각신, 왜냐하면, 우물쭈물, 이글이글, 폴짝폴짝, 허둥지둥, 흐물흐물 (이상, 4음절)
감탄사	뿔, 아, 응, 흥 (이상, 1음절) / 떼끼, 아휴, 어휴, 예잇, 위위, 쫓쫓 (이상, 2음절) / 그러게, 아무렴, 아이 참, 어이구 (이상, 3음절)

〈표7〉 ④명사(구)·부사·감탄사-표제어 미등록 예9)

	구체적인 예
명사(구)	DJ, 스텝, 엇박, 황니 (이상, 2음절) / 게임 끝, 급 수습, 급 변명, 남의 집, 예진 표, 오케이, 팬미팅, 핑크빛 (이상, 3음절) / 12년 전, 24년 전, 강등조치, 그날 이후, 낡은 응원, 다음 관문, 다음 차례, 대형사고, 무한 매력, 속옷 광고, 신입 단원, 심기불편, 심층 면접, 엇박 응원, 여성 단원, 예비 단원, 의욕 충만, 일동기립, 직업 정신, 특별 할인, 특이사항, 항목 추가, 확인 작업 (이상, 4음절) / 1998년, 다음 테스트, 우리 대표팀, 클래식 예능, 클럽 마니아, 회심의 멘트 (이상, 5음절) / 3D 지정업소, 화해의 제스처, 예방접종 후유증 (이상, 6음절 이상)

기본적으로 발화를 재현한 자막이 아닌 상기 예와 같은 비발화 자막을 빈번하게 활용한다는 점은 일본 예능 프로그램과 대비되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4.2.1.2. ⑤어근 자막

그림5~그림8은 非發話100 자막 중에서 ⑤어근 자막으로 분류되는 예를 제시한 것이다.



상기 그림에 등장하는 「신기」 「멍~」 「느끼」 「오글」 「부끄」 는 출연자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 출연자가 연출한 분위기 등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

9) 비표제어를 대상으로 한 부사와 감탄사의 판별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명사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⑫기타 자막으로 처리하였다.

는데, 각각 '신기하다' '멍하다' '느끼하다' '오글거리다' '부끄럽다'의 앞 1~2 음절을 활용한 자막이다. 기본형을 기준으로 하면 동사 '오글거리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형용사이고, 제시된 자막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부끄'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근(語根)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자막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관찰되는데 비해,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참고로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한 예들 중 상기 예도 포함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8〉 ㉮ 어근 자막

	구체적인 예
~하다형	멍 ¹⁰⁾ (이상, 1음절) / 깔끔, 느끼, 답답, 머쓱, 멀쩡, 민망, 발랄, 뿌듯, 신기, 온화, 절친, 진지, 털털, 후련, 흐뭇(이상, 2음절) / 심드렁, 얼떨떨(이상, 3음절)
~거리다형	두근, 술렁, 오글(이상, 2음절) / 어슬렁, 허우적(이상, 3음절)
기타	부끄, 부름(이상, 2음절)

구체적인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 어근 자막에는 2음절로 이루어진 예가 많고¹¹⁾, 「부끄」는 「부끄럽다」에서, 「부름」은 「부름쁘다」에서 활용된 자막으로 이들은 2음절로 이루어진 '~하다형' 어근 자막과 '~거리다형' 어근 자막의 빈번한 사용에 영향을 받아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²⁾. 이 점에 대해서는 「부끄」와 같이 2음절이면서도 정확히 어근 형태는 아닌 자막이 언제 등장하

10) 변영수(2008 : 72)는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제시한 자막에서는 부사 형태로 문장을 끝맺거나 부사로만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 양식도 흔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일례로 「카메라는 도는데 다들 멍~!»이란 자막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 '멍'은 '멍하다'의 어근으로 기술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 어근 자막으로 분류하였다.

11) 참고로 「아절」 「우쭐」 「울컥」 「퍼덕」은 '아절하다' '우쭐거리다, 우쭐대다, 우쭐하다' '울컥거리다, 울컥대다, 울컥하다' '퍼덕거리다, 퍼덕대다, 퍼덕이다, 퍼덕하다'와 같은 형태에서 활용된 어근으로도 보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부사' 의미가 최상위 용법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 명사(구)·부사·감탄사에 속하는 예로 분류하였다.

12) 2015년 9월 1일에 방송된 '불타는 청춘'(SBS) 제24회에서는 「문질 문질」이라는 자막이 등장하였는데, 현장 상황으로 볼 때 '문지르다'로부터 파생된 자막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2음절로 이루어진 자막이긴 하나 기본형 3음절 초성 '르'을 2음절 종성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상기 「부끄」와 「부름」과는 또 다른 패턴에 해당되고, 앞으로 ㉮ 어근 자막의 아류로 다양한 형태의 자막이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같은 방송분에서는 「주물 주물」이란 자막도 등장하였는데, 이는 '주무르다'로부터 위의 「문질 문질」과 같은 방식으로 파생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으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부사 '주물주물'이 수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부사의 사용례일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주물주물'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점도 함께 고려해 보면 당시 자막 제작자가 「주물 주물」을 어떤 형태로 인식하고 활용하였는지는 매우 흥미롭다.

였는지 그 최초 등장 시기를 명확히 밝혀내고, 그 시기 전후의 ‘~하다型’ 어근 자막과 ‘~거리다型’ 어근 자막의 사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추적 조사는 본고의 후속연구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4.2.1.3. ⑥어간 자막

그림9~그림11은 非發話100 자막 중에서 ⑥어간 자막으로 분류되는 예를 제시한 것이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어간으로 분류되는 자막은 그림9의 「아쉽」과 그림10의 「반갑」뿐이었고, 그림11의 「부럽」은 연구 목적상 표4에서 제시한 2013년 6월 30일에 방송된 ‘무도’에서 인용한 예다.



그림9
무도(2014.06.14.)



그림10
무도(2014.06.14.)



그림11
무도(2013.06.30.)

⑤어근 자막과 비교하면 ⑥어간 자막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고, 2음절로 이루어진 예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들 또한 상기 「부끄」 「부럽」과 마찬가지로 ‘~하다型’ 어근 자막과 ‘~거리다型’ 어근 자막의 빈번한 사용에 영향을 받아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 대한 추적 조사도 후속연구에서 같이 병행할 계획이다¹³⁾. 참고로 (7)은 졸고(2015 : 142~143)에서 제시한 예와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포함하여 지금까지 수집한 ⑤어간 자막의 예들을 종류별로 나타낸 것이다.

- (7)a. 귀엽, 귀찮, 그림, 두렵, 매섭, 멋쩍, 무섭, 반갑, 부럽, 서럽, 수줍, 싱겁, 아깝, 아쉽, 알밋, 언짢, 짓궂, 해맑, 힘겹, 힘들 (2음절 형용사 어간)
- b. 안쓰럽, 안타깝 (3음절 형용사 어간)
- c. 께안, 파문 (2음절 동사 어간)

13) 현 시점에서는 상기 예들의 등장 시기를 ‘~하다型’ 어근 자막·‘~거리다型’ 어근 자막→‘부끄型’ 자막→어간 자막 순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금후 면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7c)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용사 어간에 해당되는데, 본고에서는 다른 자막들보다 특히 이들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해당 예들은 금후 일본어 '형용사 어간 단독용법(形容詞語幹单独用法)'(富樫2006: 165)과 비교 대상이 될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8)a. (예상치 못한 친구의 무서운 모습을 보았을 때) あっ, 怖!
 b. (전망대에 올라 아름다운 시내 야경을 보고) わあ, きれい!
 (9)a. (예상치 못한 친구의 무서운 모습을 보았을 때) *앗, 무섭!
 b. (전망대에 올라 아름다운 시내 야경을 보고) *우와, 아름답!

(8)과(9)는 줄고(2015: 130)에서 인용한 것인데, 일본어에서는 형용사 어간을 일상 회화체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지만(今野2005·富樫2006), 한국어에서는 일본어와 동일한 형태로 활용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형용사 어간도 줄고(2011: 61~62)에서 지적했듯이 텔레비전 자막이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에서는 사용되고 있고, 만약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9)와 같은 형태를 자주 사용하여 유행어가 된다면 일상 회화체에서도 시민권을 얻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실제로 2015년 8월

21일에 방송된 '불타는 청춘'(SBS) 제22회에서 출연자 박세준이 같이 배에 타고 있던 동료 출연자가 낚시에 성공한 모습을 보고 "부럽 부럽"이라는 발화를 했고 자막으로는 「부럽 부럽」으로 처리되었는데(그림12), 이는 한국어 형용사 어간을



그림12

불타는 청춘(2015.08.21.)

실제 발화에서 사용한 명백한 예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텔레비전 자막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과 같은 SNS상에서도 「부럽」과 같은 형용사 어간 사용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7a, b)에 제시한 한국어 형용사 어간 자막의 존재와 그들이 앞으로 (8)과 같은 용법으로도 실제 사용될지의 여부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4.2.1.4. ㉗ 불완전한 형태 문장 종결 자막

(10)은 非発話100 자막 중에서 불완전한 형태로 문장을 종결하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한 것이다.

- (10)a. 「불일 없다고 생각해 속이 후련」(무도, 2014.06.14.)
- b. 「멘트만큼 답답」(무도, 2014.06.14.)
- c. 「실수로 속옷까지 흘러덩～」(무도, 2014.06.14.)
- d. 「과거 복학생 오빠들의 로망 그들의 존재 이유였던...」(무도, 2014.06.14.)

(10a)의 「불일 없다고 생각해 속이 후련」과 (10b)의 「멘트만큼 답답」은 각각 형용사 '후련하다' '답답하다'의 어근으로 문장을 종결하고 있다. 또한 (10c)의 「실수로 속옷까지 흘러덩～」은 부사로 문장을 끝맺고 있으며, (10d)의 「과거 복학생 오빠들의 로망 그들의 존재 이유였던...」은 관형사형 어미로 문장을 종결하고 있다. (10d)의 자막은 출연자 손예진에 대한 제작진의 평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연이어 「세월이 지날수록 진한 장맛 같은 미모」 「신입 단원 후보자 손예진」이란 자막이 등장하면서 해당 출연자명이 명시되기는 하지만, (10d)의 자막이 등장하는 화면에서는 일단 관형사형 어미로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등에 업고서라도 데려갈 판」 「부정적 내용만 가득」 「최신 곡이 맞춰 댄스 한 번?」과 같은 예도 ㉞불완전한 형태 문장 종결 자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자막은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이지 않고 이번 조사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상기 예들은 양국 예능 프로그램의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자막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4.2.1.5. ㉞속마음 자막

그림13~그림16은 非發話100 자막 중에서 ㉞속마음 자막으로 분류되는 예를 제시한 것이다.



상기 그림의 「진짜 예쁘다」 「맞아!」 「이게 갑자기 뭐 일이야...」 「가만 있어 보자...」는 각 출연자의 실제 발화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고, 각 상황에

대한 출연자의 생각이나 반응 등을 마치 실제 발화인 것처럼 자막으로 처리한 예다. 李準煥(2011 : 5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속마음 자막은 "소설에서 作家가 全知的 作家 視点を 취하여 登場人物의 마음속까지 그려 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속마음 자막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자주 관찰되고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行列'에서는 진무했고, '무도'에서는 「그만해!」 「미쳐 진짜」 「질 수 없지」 「어이구…」 등을 포함해서 총 46개의 예가 수집되었다.

4.2.1.6. ㉑출연자 지칭어 자막

(11)은 非發話100 자막 중에서 ㉑출연자 지칭어 자막이 포함된 예를 제시한 것이다.

- (11)a. 「예진표 살사에 없던 힘도 샘솟는 어르신」(무도, 2014.06.14.)
- b. 「모두의 편안한 식사를 위해 돌+I 제압」(무도, 2014.06.14.)
- c. 「유쾌했던 공블리와와 통화!」(무도, 2014.06.14.)

여기서 「어르신」은 박명수를, 「돌+I」는 노홍철을, 그리고 「공블리」는 전화 상대인 공효진을 가리키는 지칭어인데, 모든 출연자의 지칭어가 등장하거나 자주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의 실제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非發話100 자막으로 사용된 출연자의 닉네임이나 지칭어가 관찰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보면, ㉑출연자 지칭어 자막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만 하다.

4.2.1.7. ㉒자음 활용 자막

그림17~그림19는 非發話100 자막 중에서 ㉒자음 활용 자막으로 분류되는 예를 제시한 것이다. 단, 이번 조사에서 해당 자막은 그림17의 「ㅎㅎ」이 유일하였고, 그림18과 그림19의 자막은 즐고(2015 : 144)에서 제시한 2013년 6월 30일에 방송된 '런닝맨'(SBS)의 예를 인용한 것이다.



그림17
무도(2014.06.14.)



그림18
런닝맨(2013.06.30.)



그림19
런닝맨(2013.06.30.)

본고의 조사 결과 겨우 하나뿐이었던 예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줄고(2015 : 144)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어는 자음만의 표기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상기 예들은 한국어의 특성을 살린 표현 수단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자음 활용 자막은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 非發話100 자막의 고유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줄고(2015)에서 조사한 2013년 6월 30일에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㉑ 자음 활용 자막이 총 30회(「ㅋㅋ」(16회), 「ㅎㅎ」(7회), 「ㅋㅋㅋ」(2회), 「ㅋㅋㅋㅋ」(2회), 「ㅎㅎㅎㅎ」(1회), 「ㅋㅋㅋㅋ」(1회), 「ㅋㅋㅋㅋㅋㅋ」(1회))나 활용되었는데, 이에 비해 표4에서 제시한 2013년 6월 15일 방송된 '무도'에서는 해당 자막이 등장하지 않았고, 본고의 2014년 6월 14일 방송분 조사에서는 그림40의 「후후」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프로그램마다 선호하는 자막 제시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분석도 한일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 관한 종합적인 대조연구를 위해서는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4.2.1.8. ㉑ 부호 활용 자막

(12)는 非發話100 자막 중에서 ㉑ 부호 활용 자막으로 분류되는 예를 제시한 것이다. 단, 여기에 속하는 자막은 부호만으로 하나의 자막을 형성하는 예로 한정된 것이며, 발화 등과 함께 제시되는 다양한 부호들에 대해서는 ㉒ 각종 부호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12)a. 「… …」(行列, 2014.06.29.)

b. 「…」(무도, 2014.06.14.)

c. 「?」(무도, 2014.06.14.)

d. 「!!!」(무도, 2014.06.14.)

상기 「…」 「？」 「!!!」 는 각 출연자가 그 상황에서 즉각적인 발화를 못 하거나 의구심이 든 경우, 또는 무언가를 보고 놀란 경우에 사용된 부호들인데, 이렇게 부호만을 활용한 자막이 눈에 띄게 자주 등장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현장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양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4.2.1.9. ㉒기타 자막

그림20~그림23은 非發話100 자막 중에서 ㉒기타 자막으로 분류한 몇 가지 예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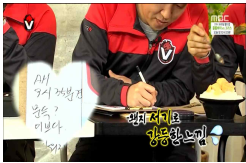


그림20
무도(2014.06.14.)



그림21
무도(2014.06.14.)



그림22
무도(2014.06.14.)



그림23
무도(2014.06.14.)

그림20의 「웬지 서기로 강등된 느낌」 은 전후 상황 전개상 「웬지 서기로 강등된 느낌」 이란 표현의 문법적 오류로 판단된다. 그림21의 “신해!” 라는 發話 100 자막과 함께 등장한 「여전히 엇박」 은 「엇박」 이 명사 ‘엇박자’의 줄임말로 보이는데, 이는 표준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명사가 「여전히」란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다¹⁴. 그리고 그림22의 ‘살사 신나’ 를 표현하기 위해 「th」가 활용된 자막은 4.1.1.에서 언급한 특정 출연자의 발음을 특징화한 예로 볼 수 있는데, 그림20~그림22와 같은 종류의 자막은 규범적인 언어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어 그 사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이 문제가 될 만한 자막은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그림23과 같이 현장 상황을 애써 참고 있는 출연자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자 한 글자로 구성된 「忍」과 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사용한 예도 확인되었다. 표9는 그 밖의 ㉒기타 자막으로 분류한 예를 정리한 것이다.

14) 명사가 부사의 수식을 받는 형태로는 표9의 기타2에 제시한 「난생 처음」 「대뜸 일침」과 같은 예도 관찰되었다.

〈표9〉 12 기타 자막

	구체적인 예
기타1 (표제어)	무슨 (이상, 2음절) / 그래도, 이러면, 이렇게 (이상, 3음절) / 냉정하다 (이상, 4음절)
기타2 (비표제어)	큵 (이상, 1음절) / 끄응, 끄헐, 샴방, 크흠, 푸흠, 후우, 휴우, 히헛 (이상, 2음절) / 으 이그, 헤벌레, 핑그르르 (이상, 3음절 이상)
기타3 (비표제어)	나참, 됐고..., 둘이, 몰라?, 이걸, 이게, 일이? (이상, 2음절) / 결혼해, 그만해, 기억 나?, 나가요!, 난 알지~, 놀랐어, 모르셔, 배고파, 숨겨둔, 안 믿겨, 어이無, 연기로, 열맞춰, 오해마, 울드레, 이거 참, 이제는, 저 차는..., 좀 믿어, 혼날래? (이상, 3음절) / 가능할까?, 가만보니, 고맙지만, 과한 친절, 그거잖아, 극중에서, 기억났다, 나란 남 자, 난생 처음, 대뜸 일침, 말도 안 돼, 무시하고, 보자마자, 사귀다니, 쑥쑥 자라, 아 무것도, 어이없음, 열 좀 식혀, 영화 같다, 요것 봐라?, 진심이야, 친해져요!, 해보라 고... (이상, 4음절) / 그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넋놓고 구경, 어디서 감히, 여기 가볼 까?, 함께 사시는, 좋은 사람이야 (이상, 5음절 이상)

상기 예들은 전적으로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제시한 자막으로 한국 예능 프
로그램에서는 제작진의 관여가 매우 적극적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4.2.2. 非發話 자막

(13)은 비발화 자막 중 非發話 자막으로 분류한 몇 가지 예를 보인 것이다.

- (13)a. 「甘利經濟再生担当大臣」(行列, 2014.06.29.)
- b. 「오랜만에 소집된 응원단」(무도, 2014.06.14.)
- c. 「단원 계약 이후 드라마에서 활약했던 바로」(무도, 2014.06.14.)

(13a)의 장면에서는 “この事件を受け、甘利担当大臣は”라는 내레이션의 발화가 나
오는데 자막으로는 「甘利經濟再生担当大臣」으로 처리되어 있고, (13b)의 장
면에서는 “다들 오랜만에 모인 것 같습니다”라는 출연자의 발화가 자막으로는
「오랜만에 소집된 응원단」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3c)에서는 출연자가 “드
라마는 다 끝났구요, 이제 또”라고 말하는데, 자막으로는 「단원 계약 이후 드
라마에서 활약했던 바로」라는 ‘非發話100·非發話’ 형태가 등장하였다. 상기
「甘利經濟再生担当大臣」 「오랜만에 소집된 응원단」 「드라마에서 활약했던
바로」는 내레이션이나 출연자의 발화를 재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자막을 생
산하는 제작진에 의해서 적절한 형태로 가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비발화 자막으로 분류하였고, 내레이션이나 출연자의 발화가 일부분 포
함되어 있어 발화와는 일체 무관한 非發話100 자막으로는 분류할 수 없었기

때문에 非發話 자막으로 처리한 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非發話 자막으로 분류된 예는 표5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많지는 않다.

4.3. 각종 부호

여기서는 발화 자막과 비발화 자막과 함께 등장하는 ㉓ 각종 부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14)는 각종 부호들 중에서 發話100 자막과 함께 사용된 몇 가지 예를 제시한 것이다.

- (14)a. 「もっど!!」(行列, 2014.06.29.)
- b. 「ご褒美のアンパン持ってきて! 本当ですか!?!」(行列, 2014.06.29.)
- c. 「이게 요즘 트렌드야?!」(무도, 2014.06.14.)
- d. 「???네!」(무도, 2014.06.14.)

그리고 표10은 본고의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양국 프로그램의 부호를 나타낸 것이다. (14)의 예들을 통해서 방송심의기획팀(2010 : 11)이 지적한 “문장 부호의 과도한 사용, 잘못된 문장 부호 사용, 서로 다른 문장 부호의 동시 사용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점과 표10을 통해서도 일본 프로그램보다 한국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부호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10〉 ㉓ 각종 부호

	구체적인 부호
行列	!, !!, !?, ?, ???, …, (), ~, ♥, ♪, /, :, 「」, ✨
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 ' ', " ", ✨

각종 부호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양국 프로그램 모두 「!」와 「?」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온점 사용은 거의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와 「~」에 한해서는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훨씬 자주 활용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行列’에서는 867개의 자막 중 200곳에서, ‘무도’에서는 1,089개 자막 중 492곳에서 부호가 활용되어 약 23% : 45%의 비율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호를 더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4. 한일 예능 프로그램 자막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상, 4.3까지의 고찰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양국 예능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자막의 공통점과 차이점1

공통점	발화 자막(發話100·發話)과 비발화 자막(非發話100·非發話)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된다.
차이점	①일본 예능 프로그램보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막을 활용한다. ②일본 예능 프로그램은 발화를 100% 충실히 재현한 發話100 자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발화와는 일체 무관한 非發話100 자막이 월등히 많다.

표11은 표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이고, 표12는 4.1.~4.2.의 주요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12〉 양국 예능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자막의 공통점과 차이점2

		일본	한국		
공통점	발화 자막	① 발화 일부 변형 자막	있음		
		② 발화 일부 축소 자막	있음		
		③ 발화 일부 확대 자막	있음		
	비발화 자막	⑪ 부호 활용 자막	적절히 활용	적절히 활용	
차이점	비발화 자막	발화 자막	※방언 사용	관서 방언 다수	특정 방언 없음
		④ 명사(구)·부사·감탄사 자막	극히 적음	다수	
		⑤ 어근 자막	없음	다수	
		⑥ 어간 자막	없음	있음	
		⑦ 불완전 형태 문장 종결 자막	없음	있음	
		⑧ 속마음 자막	없음	다수	
		⑨ 출연자 지칭어 자막	없음	있음	
		⑩ 자음 활용 자막	활용 자체 불가	있음	
		⑫ 기타 자막	극히 적음	다수	

그리고, ⑬ 각종 부호에 대해서는 1)문장 부호의 과도한 사용이나 잘못된 사용, 서로 다른 문장 부호의 동시 사용 등이 관찰되었고, 2)「!」와「?」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3)은점 사용은 거의 없었다는 공통점과, 4)「…」와「~」에 한해서는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훨씬 자주 활용되었고, 5)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예능 프로그램보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부호를 훨씬 더 빈번하게 활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5. 나가기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예능 프로그램 자막을 대상으로 유형 분류를 실시하고 유형별 대조 분석을 통하여 언어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졸고(2015)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 즉, '일본 예능 프로그램은 발화를 100%로 충실히 재현한 発話100 자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④명사(구)·부사·감탄사 자막이나 ⑤어근 자막, ⑧속마음 자막과 같은 발화와는 일체 무관한 非發話100 자막이 월등히 많다는 사실과, 이를 근거로 양국 예능 프로그램 자막은 '발화 중시형(發話重視型)' 일본 자막과 '비발화 다용형(非發話多用型)' 한국 자막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쉽」 「반갑」과 같은 非發話100 자막으로 분류되는 ⑥어간 자막이 등장하고 '이들이 앞으로 일상 회화 체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예측한 점은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본고의 중요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고는 졸고(2015)의 후속편으로 수행되어 기본적으로 졸고(2015)의 고찰 대상이었던 '行列'와 '무도'를 분석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상기 핵심적인 결론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로 보여질 수 있고, 표12에서 정리한 세부적인 공통점과 차이점 또한 이번 조사만의 결과로 한정될 가능성도 있다¹⁵⁾. 만약 그렇다면 이는 본고가 지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일 예능 프로그램 자막을 대상으로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졸고(2015)와 본고의 분석 결과는 충분한 의의가 있고, 후속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후, 본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양국 예능 프로그램 자막의 전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15) 본고의 조사 결과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는 특정 지역의 방언 사용이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 충청도 출신 요리 연구가 백종원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맛있쥬?」 「대단하쥬?」와 같은 충청도 방언이 자막으로 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범위를 확대시키면 표12의 결과는 다소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방언' 사용 자막에 한해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직 보편화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향후 이들이 더욱 빈번하게 활용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을 위한 활용으로 시민권을 얻지는 못할 것인지의 여부는 흥미로운 문제다. 앞으로 주의 깊게 관찰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문헌】

- 강연임(2007) 「오락프로그램 자막언어의 유형과 기능」 『한국언어문학』 62, 한국언어문학회, pp.5-27
- 권길호(2012) 「TV 예능프로그램 자막의 유형 분류 연구—〈1박2일〉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31, 우리말학회, pp.229-252
- 방송심의기획팀(2010) 「지상파 방송 3사 주말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자막 사용 실태 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p.1-65
- 방송심의기획팀(2011) 「지상파 주말 오락 프로그램의 자막사용 실태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p.1-22
- 변영수(2008) 「오락 프로그램에 나타난 자막의 표현 형식 연구—〈무한도전〉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pp.59-87
- 이은희(2007) 「오락 프로그램 음성 언어 표현 자막의 유형과 특성」 『텍스트언어학』 2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45-68
- 李準煥(2011) 「放送 字幕 言語의 特徴과 關聯 要因—프로그램 種類에 따른 特徴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33-61
- 이충규(2015)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 관한 한일 대조언어학적 연구」 『日本語学研究』 43, 韓国日本語学会, pp.129-149
- 李忠奎(2011) 「日韓語の形容詞語幹について—「語幹の自立性」という観点から—」 『日本学報』 87, 韓国日本学会, pp.53-68
- 今野弘章(2005) 「イ落ち」 『日本英語学会第23回大会ワークショップ「多角的視点からのインターフェイス研究に向けて」』 핸드アウト, pp.1-6
- 里村洋子(2009) 「文字テロップによる情報伝達の階層性—バラエティ番組の多層的な情報伝達について—」 北海道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修士論文, pp.1-40
- 設楽馨(2008) 「テレビのトークコーナーを読む—同一の発話を伴わない文字テロップの実態—」 『武庫川女子大学言語文化研究所年報』 18, 武庫川女子大学言語文化研究所, pp.37-61
- 塩田英子(2001) 「文字テロップと推論モデル」 『表現研究』 74 表現学会 pp.47-56
- (2005) 「バラエティ番組における文字テロップの役割—発話理解のしくみを探る—」 三宅和子・岡本能里子・佐藤彰編 『メディアとことば2 特殊：組み込まれるオーディエンス』 ひつじ書房, pp.32-58
- 富樫純一(2006) 「形容詞語幹単独用法について—その制約と心的手続き—」 『日本語学会2006年度春季大会予稿集』 日本語学会, pp.165-172
- 日本大学芸術学部放送学科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演習IVテロップ研究班(2000) 「テレビ画面に躍る文字たちの生態学」 『GALAC』 4月号, 放送批評懇談会, pp.30-35

【사전·기타】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연세한국어사전』 (1998) 두산동아
- 『일본어 위키백과』 (<http://ja.wikipedia.org/wiki>)
- 『표준국어대사전』 (1999)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두산동아

『한국어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인터넷 이디엄] <12> 찢다 (<http://www.etnews.com/201010070029>)

【고찰 프로그램】

日本テレビ 『行列のできる法律相談所』 2014.06.29.

MBC 『무한도전』 2014.06.14. / 2013.06.15.

SBS 『런닝맨』 2013.06.30.

SBS 『불타는 청춘』 2015.09.01. / 2015.08.21.

논문 투고 일자 : 2015. 12. 28
논문 심사 일자 : 2016. 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6. 2. 4

 < 要 旨 >

 お笑い番組のテロップに関する韓日対照研究
 - 類型分類分析を中心に -

李忠奎

本稿は韓国と日本のお笑い番組のテロップを対象にして類型化して分類し、その結果を対照・分析したものである。その結果、拙稿(2015)の最も核心的な結論、すなわち、日本のお笑い番組には発話を100%忠実に再現した「発話100」テロップが圧倒的に多いのに対して、韓国のお笑い番組には④名詞(句)・副詞・感動詞テロップや⑤語根テロップ、⑧いわゆる内心テロップのような発話とは直接的な関係のない「非発話100」テロップが多いということと、この事実に基づいて両国のお笑い番組のテロップは、日本の「発話重視型」テロップと韓国の「非発話多用型」テロップに特徴付けられる、という結論を改めて確認できた。また、韓国のお笑い番組では「아쉽(aswib;もの足りない)」「반갑(bangab;うれしい)」のような「非発話100」に分類される⑥語幹テロップがよく登場し、「これらは、今後、日常会話で市民権が得られる可能性がある」としたのは、先行研究では言及されていない本稿の重要な指摘であるといえることができる。

 A Contrastive Study of Telops in Korean and Japanese Comedy Programs
 - Focusing on Type Classification Analysis -

Lee, Chung-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type classification targeting telops of Korean and Japanese comedy programs and to presen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with a focus on the linguistic aspects by contrast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Japanese comedy programs have overwhelmingly many telops faithfully transcribing 100% what is being verbally spoken at that time while Korean comedy programs have 100% non-verbal telops completely irrelevant to the actual verbal words such as ④noun(phrase)·adverb·exclamation telops or ⑤root telops, ⑧inner voice telops. Based on this, telops of comedy programs in both countries can be characterized by 'speech focusing type' in Japanese and 'non verbal general-purpose type' in Korean. Also,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a sense that it predicts important points which have not been fully discussed in them: ⑥stem telops classified into non verbal 100 telops, e.g. "aswib(sorry)" "bangab(glad)" occur in Korean comedy programs and these involve a potential that can gain citizenship in an everyday colloquial style in the future.